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정책동향

Vol. 08

2013. 09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3 8. 1~8. 31)

건축문화 부문

- "국가공간정보 포털" 8월1일부터 본격 서비스
- 동해 명칭은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 지도에 사용되었다!
- 대전시, 종이자적 100년 만에 디지털자적 탈바꿈
- 현대인의 삶에 맞는 한옥의 모습을 찾습니다
- 문혔던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100년 만에 모습 드러내
- 국토교통부, 신진건축사들의 성장희망 사다리 구축
- 동래 읍성지 일원 도시·건축문화의 잠재성을 일깨우다!
- 도시 마을살이의 모든 것 '2013 서울 마을박람회'

녹색 건축·도시 부문

-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참여작 공모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정·시행
- 경기도, 총간소음관리 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 개설
- 건축설계산업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
- 제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 작품접수
- 공공부문 기관들 온실가스 감축 앞장, 2012년 40만 톤 감축
- 녹색도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요!
- 녹색디자인 인증 신청하세요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건축 재심의 쉬워지고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성남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 무안 일대 관광휴양단지 은퇴자시티 개발
- 서울시, 전세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9월부터 집중공급"
- 도시재생마를 창조벨트 구축사업, 민·관 거버넌스로 풀다!
- 다양한 디자인의 옥외광고물 한눈에 본대!
- 공공주택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이슈와 연구동향 | 총간소음 (2008~2013)

APU Story | 윤동주 문학관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9월호 (통권8호)

• 발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3. 09. 20 • 발행인 : 제해성 • ISS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TEL. 031-478-9845 Email. kslee@auri.re.kr(이경신)

| | | |
|-------------|-------------------------------------|----|
| 건축도시분야 |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5 |
| 정책 Updates |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 6 |
| <hr/> | | |
| 건축문화 부문 | “국가공간정보 포털”8월1일부터 본격 서비스 | 8 |
| | 동해 명칭은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 지도에 사용되었다! | 8 |
| | 대전시, 종이지적 100년 만에 디지털지적 탈바꿈 | 9 |
| | 현대인의 삶에 맞는 한옥의 모습을 찾습니다 | 9 |
| | 물뿔던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100년 만에 모습 드러내 | 10 |
| | 국토교통부, 신진건축사들의 성장희망 사다리 구축 | 10 |
| | 동래 읍성지 일원 도시·건축문화의 잠재성을 일깨우다! | 11 |
| | 도시 마을살이의 모든 것 ‘2013 서울 마을박람회’ | 12 |
| <hr/> | | |
| 녹색 건축·도시 부문 |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참여작 공모 | 14 |
|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정·시행 | 14 |
| | 경기도, 층간소음관리 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 개설 | 15 |
| | 건축설계산업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 | 16 |
| | 제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 작품접수 | 16 |
| | 공공부문 기관들 온실가스 감축 앞장, 2012년 40만 톤 감축 | 17 |
| | 녹색도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요! | 18 |
| | 녹색디자인 인증 신청하세요 | 19 |
| <hr/> | | |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대전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확정 | 20 |
| | 건축 재심의 쉬워지고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20 |
|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21 |
| | 성남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 22 |
| | 서울시, 도시의 정맥 ‘하수도 2030정비기본계획’ 수립 | 23 |
| | 무안 일대 관광휴양단지 은퇴자시티 개발 | 24 |
| |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결과 | 24 |
| | 서울시, 전세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9월부터 집중공급” | 25 |
| | 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시민편의 공간으로 개발 | 28 |
| | 도시재생마을 창조벨트 구축사업, 민·관 거버넌스로 푼다! | 29 |
| | 제5회 강원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29 |
| | 다양한 디자인의 옥외광고물 한눈에 본다! | 30 |
| |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 시행 | 31 |
| | 공공주택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 32 |

contents

Vol.8 2013. 9

| | | |
|--------------|------------------|----|
| 이슈와 연구동향 #4 | 충간소음 (2008~2013) | 33 |
| APU Story #3 | 윤동주 문학관 | 52 |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건축문화 부문

이번 달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동해 명칭의 국제적 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학술대회 및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연구학술대회에서는 수 세기 전부터 세계 각국의 지도에는 한국의 동쪽바다가 '한국해(조선해)'로 표기되어있었다는 연구성과 발표가 있었으며, "고지도가 들려주는 동해바다 이야기 展"에서는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일본의 고지도와 서양의 고지도 40점이 전시되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신진건축사 대상 아이디어 공모 시범사업'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권이 부여되는 양천구 목동보 건지소 공모에는 추민정 건축사(조인건축사사무소, 76년생)의 작품이 당선되었으며, 이밖에 충북청주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댐 관리사택 및 합천댐 효나눔 복지센터 공모에서는 박성현(씨드아키텍, 70년생), 강제웅(오다, 76년생) 및 박홍근(스페이스덴, 72년생)건축사의 작품이 각각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밖에 부산광역시에서는 동래 읍성지 도시·건축문화의 잠재성을 일깨우기 위한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이 지난 20일에 개최되었으며, 네덜란드, 일본, 중국, 대만, 두바이, 한국 등 6개국의 젊은 건축학생과 교수, 건축가들이 참여하였다.

▶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의 참여자 공모가 있었으며,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10월에 있을 '녹색건축 한마당'행사와 연계되어 진행된다.

또한, 지난 6일까지는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제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의 작품접수가 있었으며, 이번 공모전에서는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도록 설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환경부에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결과보고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2년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8.1%, 약 40CO2톤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발표하였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조경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한 '2013 부산녹색도시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26일부터 녹색디자인 인증제 실시를 통해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디자인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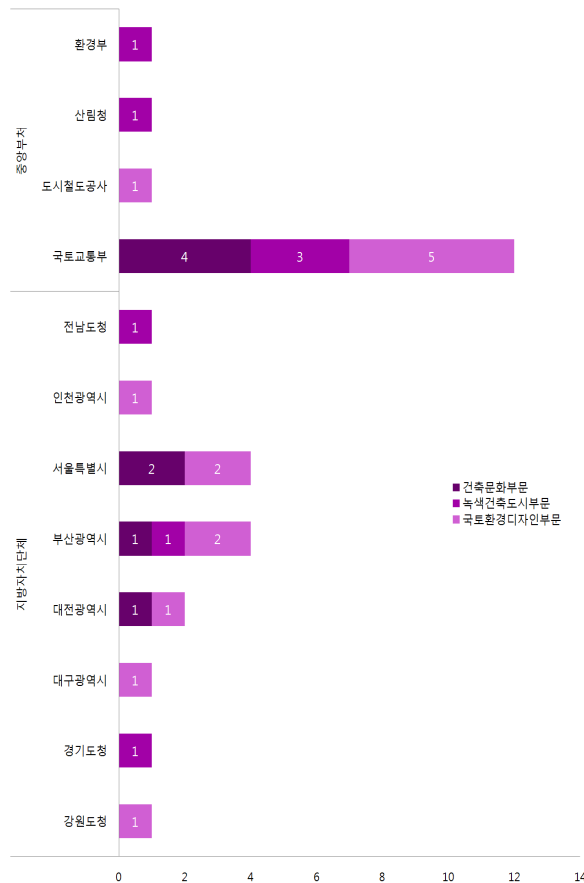
이번 달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및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전부개정안을 지난 6일 공포하여 내년 2월에 시행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품격 향상을 위해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9월 중 시행하고, 향후 보완·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부산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9월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제21회 옥외광고대상전 개최를 통해 도시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2013년도 8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0건의 발표자료 중 중앙부처가 15건(50%), 지방자치단체가 15건(50%) 발표한 것으로 정리된다.



중앙부처에서는 총 15건 중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이 5건(33.3%)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중점 발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축 재심의 쉬워지고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경관법」전부개정안을 통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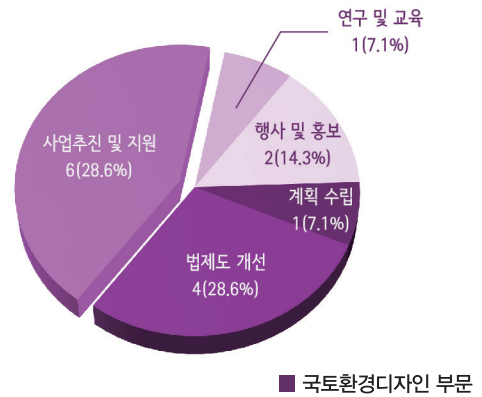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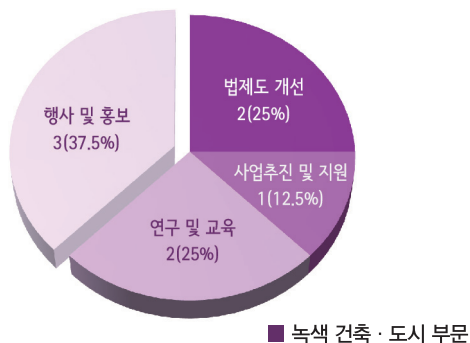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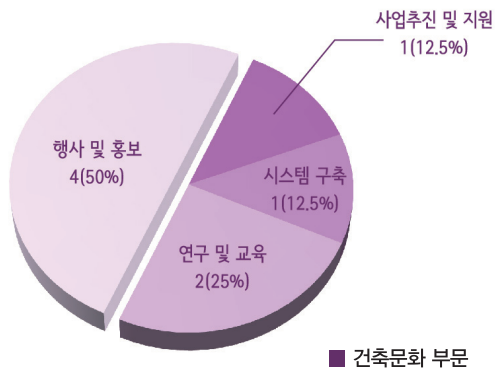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2013 서울 마을박람회’, ‘부산시, 도시재생마을 창조벨트 구축사업,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본격추진’ 등 지자체별 진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 및 사업 15건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정책사업을 발표한 부문은 8건(53.3%)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한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으로 정리된다.

| 주관부처 | | 건축문화 부문 | 녹색건축도시 부문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부문별 합계 |
|-------------|--------|----------|-----------|------------|----------|
| 중앙부처 | 환경부 | — | 1(3.3%) | — | 1(3.3%) |
| | 산림청 | — | 1(3.3%) | — | 1(3.3%) |
| | 도시철도공사 | — | — | 1(3.3%) | 1(3.3%) |
| | 국토교통부 | 4(13.3%) | 3(10%) | 5(16.7%) | 12(40%) |
| 합계 (중앙부처) | | 4(13.3%) | 5(16.7%) | 6(20%) | 15(30%) |
| 지방자치단체 | 전남도청 | — | 1(3.3%) | — | 1(3.3%) |
| | 인천광역시 | — | — | 1(3.3%) | 1(3.3%) |
| | 서울특별시 | 2(6.7%) | — | 2(6.7%) | 4(13.3%) |
| | 부산광역시 | 1(3.3%) | 1(3.3%) | 2(6.7%) | 4(13.3%) |
| | 대전광역시 | 1(3.3%) | — | 1(3.3%) | 2(6.7%) |
| | 대구광역시 | — | — | 1(3.3%) | 1(3.3%) |
| | 경기도청 | — | 1(3.3%) | — | 1(3.3%) |
| | 강원도청 | — | — | 1(3.3%) | 1(3.3%) |
| 합계 (지방자치단체) | | 4(13.3%) | 3(10%) | 8(26.7%) | 15(50%) |
| 총 계 | | 8(26.7%) | 8(26.7%) | 14(46.7%) | 30(100%) |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각 부문에 대해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문화 부문」은 전체 30건 중 8건(26.7%)으로 '행사 및 홍보' 분야 4건(13.3%), '연구 및 교육' 분야 2건(6.7%), '시스템 구축' 및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각각 1건(3.3%)의 정책 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정리된다.

전체 30건 중 8건(26.7%)이 발표된 「녹색건축·도시 부문」은 '행사 및 홍보' 분야 3건(10%), '연구 및 교육' 분야 및 '법·제도 개선' 분야 각각 2건(6.7%),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1건(3.3%)으로 정리되며,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사업은 총 14건(46.7%)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6건(20%), '법·제도 개선' 분야 4건(13.3%), '행사 및 홍보' 분야 2건(6.7%), '계획수립' 및 '연구 및 교육' 분야 에서 각각 1건(3.3%)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 세부 분야 | 건축문화 부문 | 녹색 건축 도시부문 |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 분야별 합계 |
|-----------|----------|------------|------------|----------|
| 계획수립 | — | — | 1(3.3%) | 1(3.3%) |
| 법·제도 개선 | — | 2(6.7%) | 4(13.3%) | 6(20%) |
| 사업추진 및 지원 | 1(3.3%) | 1(3.3%) | 6(20%) | 8(26.7%) |
| 시스템 구축 | 1(3.3%) | — | — | 1(3.3%) |
| 연구 및 교육 | 2(6.7%) | 2(6.7%) | 1(3.3%) | 5(16.7%) |
| 행사 및 홍보 | 4(13.3%) | 3(10%) | 2(6.7%) | 9(30%) |
| 총 합계 | 8(26.7%) | 8(26.7%) | 14(46.7%) | 30(100%) |

■ 부문별 세부분야

전반적으로 8월 보도된 정책과제들은 총 30건 중 '행사 및 홍보' 분야의 정책과제가 9건(30%)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다음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8건(26.7%), 법·제도 개선 6건(20%), '연구 및 교육' 분야 5건(16.7%), '계획수립' 및 '시스템 구축' 분야 각각 1건(3.3%)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난다. / 글·편집 이경신

“국가공간정보 포털” 8월1일부터 본격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개념, 관련 정책·사업, 열린 장터 운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kr)」을 구축,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일반국민이 공간정보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공간정보 전문가는 물론 산업현장에서도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 포털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포털의 주요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간정보라는 용어가 아직도 대다수 국민에게 생소한 점을 고려하여 공간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일반사용자를 위한 「공간정보 포털 서비스」
- ②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를 위해 국내 공간정보정책, 법령 및 표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정보 전문정보」
- ③ 공간정보 관련 서적, 소프트웨어, 기기 등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 등록하고 볼 수 있는 「열린 장터(오픈마켓)」 등을 운영한다.

우리나라가 공간정보기술, 정책·제도 및 공간정보 엑스포 등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영문으로도 서비스 하며, 언제 어디서라도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모바일 웹 서비스(m.nsdi.kr)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통해 앞으로 국민이 공간정보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이 확대됨으로써 공간정보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08.01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동해 명칭은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 지도에 사용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 동서양 고지도 연구 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

한국의 동쪽 바다는 수 세기 전부터 우리 고지도에는 ‘동해’로, 세계 각국의 지도에는 ‘한국해(조선해)’로 표기되고 호칭되었다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와 동해 고지도 전시회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한국고지도연구학회·한국지도학회와 함께 「고지도에 나타난 東海지명」 학술대회와 함께 “고지도가 들려주는 동해 바다 이야기展”을 국토지리정보원 내 지도박물관(수원)에서 8월2일 개최한다.

한국 고지도와 일본·서양 고지도 등 전 세계 각국의 지도를 분석하여 역사적으로 동해 해역을 어떻게 호칭하여 왔는지를 발표하고, 동해 명칭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그중 서정철 교수(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어떤 경위로 17세기부터 사양고지도에 동해가 표기되었는지 밝히고,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가 전 세계 바다 명칭을 표준화한 과정을 재검토하여 동해·일본해 병기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예정이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전에는 서양은 물론 일본 역시 동해를 ‘한국해(조선해)’로 표기하였으며, 우리 고대 역사 자료인 삼국사기나 광개토대왕릉 비문을 보더라도 이미 서기전부터 동해(東海)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가 우리 바다라는 주장이 역사적·문헌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이 수집한 일본·서양고지도 원본 50점을 통해 한국의 동쪽 바다가 ‘조선해’와 ‘한국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양 고지도들은 17세기 이전부터 이미 한국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렇게 서양에서 사용되는 한국해라는 지명을 일본이 수입하여 19세기 일본고지도에 ‘조선해’로 번역하여 표기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18세기 전후 서양의 고지도 중에 한국해·일본해 지명 병기 지도가 상당수이며, 일본에서도 조선해·일본해 지명 병기 지도가 만들어졌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현재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동해·일본해 병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논리라는 것을 지도들이 이야기 해준다.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되는 일본 고지도는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신정만국전도(新訂萬國全圖, 세계지도, 1810년 에도막부 제작)와 대일본총계약도(大日本總界略圖, 관현지도, 1895년 제작)이며, 서양 고지도로는 17~18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한국해(Sea of Korea, Mer De Coree)를 표하여 제작한 40점의 고지도가 전시된다.

2013.08.0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또,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2030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스마트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초기에 경계분쟁 등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2013.08.13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지적과

대전시, 종이지적 100년 만에 디지털지적 탈바꿈

올해 동구 등 9개 지구 2300필지 착수, 2030년까지 150억 투자

대전광역시의 종이지적이 100년 만에 디지털지적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대전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地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면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낡은 지적도면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여 이웃주민 간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의 하나로 작용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동구 삼괴 2지구 등 전체 9개 지구 2300필지에 5억 4,000만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3억 6,400만원 등 모든 8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우선 디지털 자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인의 삶에 맞는 한옥의 모습을 찾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11.13~14일 작품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옥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현대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한옥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옥계획, 한옥건축, 한옥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계획부문은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4명 이내의 팀 또는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건축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하며 설계자·건축주·시공자·책임मुख 중 누구나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사진부문은 일반인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제출이 가능하다.

각 부문별 대상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주어지며,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특별상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상을 비롯해 총 66개 작품에 상금(총 3,81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공모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competition.hanokdb.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전이 한옥의 저변 확대와 창조적 계승을 위한 가능성 발굴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한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2013.08.14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물렸던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100년 만에 모습 드러내

서울시가 6월 발굴에 들어간 남산 중앙광장 일대서 한양도성
유구 확인, 14일 공개

일제 조선신궁 건립으로 일부는 철거되고 땅속에 묻혀 훼손됐던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이 10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남산 회현자락 3단계 정비사업 구간인 중앙광장 일대에 대한 발굴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한양도성 유구를 확인, 그 현장을 14일(수) 전면 공개했다.

이번에 발굴된 한양도성 유구는 성곽 추정선에 대한 12개의 시굴조사 지역 중 먼저 시굴에 들어간 분수대 근처 세 곳에서 모두 확인됐다.

시굴조사로 확인된 기저부와 성체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지표면으로부터 3m 깊이에서 4~5단인 곳도 있고, 6~7단인 곳도 있으며, 유구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축성 시기나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향후 전면 발굴과 전문가의 연구 검토를 통해 밝혀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발굴은 경성·용산시가도(1912) 등 기록으로만 있고 잊혀졌던 회현자락의 한양도성이 100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 한양도성의 정비방향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토된 한양도성 유구의 보존·정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2014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 2014년 사업에 착수,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발굴조사는 일제가 신궁건립으로 한양도성을 대규모로 훼손한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발굴 의의 또한 매우 크다”며 “아픈 역사지만 확인된 유구를 고스란히 보존·정비해 국민들이 바른 역사관과 애국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8.15
서울역사박물관 공원조성과

국토교통부, 신진건축사들의 성장희망 사다리 구축

45세 이하 신진건축사 대상 아이디어공모전 당선자 발표

국토교통부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공공건축 등 기존 설계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신진건축사들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한 ‘신진건축사 대상 아이디어공모 시범사업’의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잠재력 있는 신진건축사 발굴 등을 위해 작년 부터 만 45세 이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설계공모(부산, 영주, LH 및 수공 등 4개 발주기관, 6개 사업 추진 중)와 함께 본 아이디어공모전을 병행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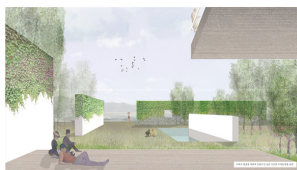
아이디어공모전은 간략한 image, 개념도 또는 설명서 등을 통해 대상사업에 대한 기획 아이디어, Design Concept 및

설계의 주요 착안점 등을 평가하는 공모방식으로, 제출물 제작비용 등 응모에 따른 부담이 적어, 특히 자금력 등에 한계가 있는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공모전 참여기회 등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수요조사를 하여, 지난 4월 충청북도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서울 양천구 목동보건지소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댐 관리사옥 및 합천댐 효나눔복지센터 등 총 3개 기관,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각각의 사업들의 당선자를 지난 8월 16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당선자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권 등을 부여하는 양천구 목동보건지소 공모에는 추민정 건축사(조인건축사사무소, 76년생)가 당선되었고, 소정의 상금 수여 및 당선作品集 제작 등의 홍보 기회가 부여되는 충북 청주의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댐 관리사택 및 합천댐 효나눔복지센터 공모에서는 박성현(씨드아키텍, 70년생), 강제용(오다, 76년생) 및 박홍근(스페이스텐, 72년생) 건축사의 작품이 각각 최우수작에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사업과 함께 올해「제1회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도 새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등 건축설계 분야의 참신한 신진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공공건축을 비롯한 기존 설계시장으로의 진출이 어려운 신진건축사들에게 보다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청댐 관리사택
오다건축사사무소 강제용



스마트 여성플라자
씨드아키텍건축사사무소 박성현



목동보건지소
조인건축사사무소 추민정

합천댐 효나눔복지센터
스페이스텐건축사사무소 박홍근

■ 신진건축사 대상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당선)작

2013.08.19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동래 읍성지 일원 도시·건축문화의 잠재성을 일깨우다!

8.20.~8.24. 2013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개최

부산시는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원위원회(위원장 허남식),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와 공동으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동아대학교 부민동 캠퍼스 국제관에서 6개국 젊은 건축학도, 교수, 건축가, 스텝 등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3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나눔과 살림(Sharing and Regenerating)’을 주제로 진행되며 역사의 흔적과 시대적 변천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동래 읍성지 일대의 장소적 특색을 발굴하여 현재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는 건축적, 도시적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올해 워크숍에는 네덜란드·일본·중국·대만·두바이·한국 등 6개국의 젊은 건축과 학생과 교수, 건축가들이 함께한다. 특히 중국 청화대, 일본 게이오대, 대만국립대,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등 외국학생 43명,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등 국내학생 44명 등 국내·외 유수한 대학의 학생과 명성 있는 튜터(국내·외 각 7명)들이 참가한다.

워크숍 작업결과물은 참가팀별로 전문가 크리틱을 통해 작품의 건축적 완성도와 독창성 및 주제와의 연관성 등을 평가한 후 부산시장상 1팀, 동아대총장상 2팀, 집행위원장상 3팀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입상된 작품들은 올해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행사기간인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영화의전당에서 전시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워크숍 총괄기획·운영 책임을 맡은 조용수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는 “올해는 수준 높은 해외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워크숍 행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결과물 또한 기대가 된다.”라면서, “지난해 리서치(Site Research)워크숍을 통해 참가 국가별로 발표한 해외 사례조사 자료와 이번엔 학생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작품들을 정리하여 만들 자료집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13.08.20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

도시 마을살이의 모든 것 '2013 서울 마을박람회'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

서울에서 마을공동체를 구성한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관심 주제들을 협동해 일궈 가는지부터 함께 느끼는 일상의 즐거움은 얼마나 큰지 등 도시 마을살이의 모든 것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2013 서울 마을박람회'가 서울광장과 시민청, 무교로 일원에서 9월 27일(금)~28일(토) 양일간 펼쳐진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돼 박람회를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난 2년여 동안 서울시민과 함께 추진해온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다양한 마을사례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장을 제공하고자 이틀간의 마을박람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2013 서울 마을박람회'는 ▲일곱빛깔 마을상상체험 ▲마을방송국 ▲천개의 마을 사진전 ▲마을기업 한마당 ▲추억의 장터 ▲마을토론회 ▲마을대합창 등이 진행된다.

〈공동육아, 에너지자립 등 다양한 주제 마을 활동 '일곱빛깔 마을상상체험'〉 박람회의 메인 프로그램인 '일곱빛깔 마을상상체험' 공간에선 공동육아, 에너지자립, 마을예술창작소, 도시텃밭 등 일곱 가지 다양한 주제로 마을을 일궈가는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다.

〈서울광장 '마을방송국' 들어서고, '천개의 마을사진전', '마을기업한마당'도〉 행사기간동안에는 마을방송국도 운영된다. 서울광장에 라디오 부스를 마련해 박람회장 구석구석의 모습을 전해주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사연들도 현장 생중계한다. 마을방송국 방송은 행사 기간 임시주파수를 통해 직접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을활동의 다양한 모습을 스케치한 사진을 모아 전시하는 '천 개의 마을사진전'과 전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마을활동 사례를 모은 '우수마을 초대전'도 열린다. 또, 협동조합 붐과 함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을기업이 참가하는 '마을기업 한마당'도 개최된다.

〈마을살이의 소소한 재미와 다양한 먹거리 맛볼 수 있는 '먹거리장터' 등〉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게 된다. 서울광장과 어린이재단 앞에 마련되는 무대에서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마을단위 동아리들의 공연이 진행된다.

자치구별로 '먹거리장터'를 마련해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마을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박람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북카페', '휴카페'를 연다.

〈시민청서 시민, 전문가가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살이 모색하는 '마을토론회'〉 27일(금) 시민청에서는 서울 마을활동의 현재,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살이를 모색하는

‘마을토론회’도 진행된다. 복지, 마을경제, 마을생태계 조성
에 대한 주제별 토론과 함께 마을활동 지원 절차나 중간지
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마을에서 청년,
주부, 은퇴자 등 주제별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토
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박람회의 마지막은 20여 개 마을합창단, 500여 명이 함께하
는 ‘마을대합창’이 장식하게 된다.

한편, ‘2013 서울 마을박람회’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주
민, 주민단체, 마을단위는 언제든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
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를 방문하면 된
다. 참가신청은 2013 서울 마을박람회 블로그(blog.naver.com/scsf2013)나 카페(cafe.naver.com/acsf2013)를 통해
서도 할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도시만이 안고 있는 소통
단절, 협력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마을공동체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2013.08.19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녹색건축 · 도시 부문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참여작 공모

패시브디자인,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최소화 건축물 대상



■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홈페이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 녹색건축물을 발굴·시상하는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참여작을 공모한다.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녹색건축 관련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서,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패시브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준공된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건축대전 공모 참가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참가신청자에 한하여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www.green2013.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녹색건축대전에 참여한 작품 심사결과 우수한 사례에 대한 시상식, 우수사례 발표회, 전시회 등은 「2013 녹색건축만마

당」 행사와 연계되어 오는 10월 23~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국건위 관계자는 “이번 녹색건축대전은 녹색건축의 현황과 기법,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녹색건축만마당 행사와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녹색건축 관련 정책 및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2013.08.05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정·시행

노후 상가·업무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성능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유지·관리 및 점검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12.11.20,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였고 동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하였다.

금번에 만든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매뉴얼에서는 점검항목을 더욱 세분화(36개 항목 → 50개 항목)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점~5점) 하

는 한편,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협조하여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수차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5개 용도의 건물을 표본 선정, 각 건축물별로 3명의 건축사가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사례집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 하였다.

금번 매뉴얼이 본격 시행될 경우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 감소를 줄이기 위한 유지·관리점검 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본 점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팸플릿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점검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

2013.08.08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경기도, 층간소음관리 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 개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 분쟁없는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명지대학교 안대희 교수)를 통해 개설한다.

경기도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이번 심화교육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공동주택총론, 소음진동개론, 층간소음 총론, 상담이론 및 실기, 그리고 층간소음 측정 실습 등 총 5과목 2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 입주자(동) 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입주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위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며, 교육인원은 40명으로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다.

교육신청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e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8월 6일부터 이메일(ksearight@hanmail.net)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장 명의의 수료증과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층간소음 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심도 있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 및 입주자 대표 등 입주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08.09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환경산업협력팀

건축설계산업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

건축설계산업 육성 산·학·연·관 실행 T/F팀 구성 출발

건축설계산업 살리기에 업계와 학계, 연구원, 정부가 함께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을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키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일자리 창출(제조업대비 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크고,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력¹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는 업체당 매출 기준으로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발주자들조차 상징성이 높은 대형 랜드마크 건축물은 외국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²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구분 | 부가가치 유발효과 | 취업유발 효과 |
|-----------|------------------|---------------------|
| 건축서비스/제조업 | 900억/626억(약1.4배) | 1,705명/920명(약 1.9배) |

■ 1,000억 투자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팀별로 팀장 1명, 간사 2명, 팀원 5~7명 내외로 구성)은 국토부, 국건위, AURI 및 민간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이 고루 참여하고 있으며, T/F팀 운영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 또한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다룸으로써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개별 T/F팀들은 주어진 과제 해결에만 집중하여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였다.

T/F팀에서 논의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공공건축설계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공모 참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설계에 적합한 PQ 기준 마련하는 등 디자인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 통합을 추진하고, BIM을 활성화하며, 건축 R&D도 확대하는 등 건축설계 환경 개선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신진건축사 육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 홍보 등 건축 문화진흥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공유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T/F 운영으로 산·학·연·관이 협업하여 구체적인 액션플랜의 도출은 물론 실행까지 이어짐으로써 우리 건축설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 TOP5³ 수준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T/F에서 논의된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14.6.5. 시행)의 하위규정 제정시에 반영될 계획이다.

2013.08.12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제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 대전 작품 접수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 행복한 도시숲 조성

산림청(청장 신원섭)에서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녹색 도시숲을 참신하고 독창적인 공간설계로 표현하여, 도시숲 조성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제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을 실시한다.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참가 신

1 상해(중국), 두바이(UAE), 바르셀로나(스페인), 베를린(독일) 등은 건축분야의 발전을 통해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2 롯데월드타워(KPF), 동대문디자인프라자(Z.하디드), 아셈무역센터(SOM) 등

3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ENR 기준, '11년)

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 받았으며, 참가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년에 개최하는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에서는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도록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림청 박도환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설계공모대전이 우리 청의 국정과제인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팀들의 많은 응모를 당부했다.

2013.08.12
산림청

공공부문 기관들 온실가스 감축 앞장, 2012년 40만 톤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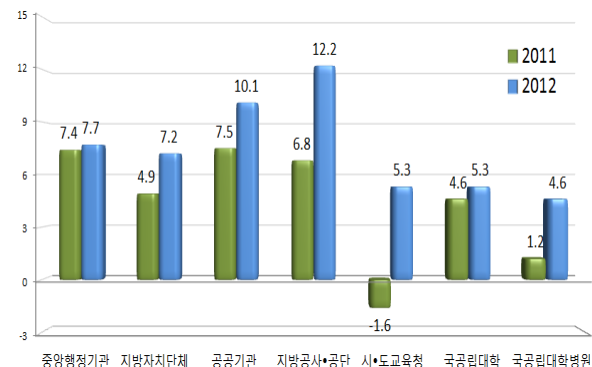
지방공사·공단 12.2%, 공공기관 10.1%, 중앙행정기관 7.7%, 지방자치단체 7.2% 등 온실가스 감축 출선수범

공공부문 기관들이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결과, 2012년 온실가스를 기준배출량⁴의 8.1%, 약 40만CO2톤⁵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이와 같이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16일 오전 국무총리가 주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제도 시행 2차년도인 2012년

이행결과를 종합평가함으로써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고 최종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2012년도 공공부문 의무 감축대상 전체 762개 기관 중 실적자료 분석이 가능한 703개 기관⁶을 대상으로 기준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배출량인 488만 7,000CO2톤의 8.1%인 39만 4,000CO2톤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나무 7,880만 그루⁷를 심는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2012년 관리목표인 8%를 달성한 것은 물론 제도시행 첫해인 2011년 감축률 5.7%보다 2.4% 더 감축한 성과다.

공공부문 유형별 감축실적을 보면, 지방공사·공단이 12.2%로 공공기관 10.1%, 중앙행정기관 7.7%, 지자체 7.2%, 국·공립대학 5.3% 등 다른 기관에 비해 감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각 유형별 기관 모두 제도시행 첫해인 2011년 감축실적에 비해 최소 0.3%, 최대 6.0% 감축률이 증가했다.



■ 공공부문 연도별(2011, 2012) 감축실적 비교

4 기준배출량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시 기준이 되는 배출량으로 2007~2009년 연평균 배출량의 평균

5 CO2톤(tCO2-eq) : 목표관리대상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의 배출량을 CO2로 환산한 값으로 CO2 환산배출량을 의미

6 온실가스 다량배출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공공기관, 국방·군사시설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7 소나무 1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CO2) 흡수량을 5kg으로 산정시의 수치

또한 공공부문 기관의 감축방법을 분석한 결과, 냉난방 온도 준수, 승강기 운행횟수 조정 등 행태개선⁸이 62.7%로 가장 높았고, 시설개선⁹ 6.9%, 천연가스 차량교체 0.8%, 기 타¹⁰ 29.6% 등 다양한 감축방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산부족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개선 보다 행태개선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보다 적극적인 감축노력이 뒷받침되어야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인다는 향후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이행실적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중소기업청(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남구(지자체), 한국무역보험공사(공공기관), 대전광역시도시설공사(지방공사·공단), 경상남도교육청(시·도교육청), 창원대학교(국·공립대학), 경북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등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냉난방 온도 준수 등 행태 개선 강화와 더불어, LED조명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교체 등 시설개선과 친환경 차량교체 등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다량 감축했다. 반면, 감축실적 미흡기관은 경남 합천군(지자체), 강원도교육청(시·도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공공기관), 창녕군개발공사(지방공사·공단), 울산과학기술대학교(국·공립대학), 충남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이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축 실적이 우수했으나 국방부가 배출량이 약간 증가했다. 미흡기관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한 시설개선 부진, 이용객 증가, 혹서·혹한기 민원시설 냉난방 가동시간 증가, 노후시설 에너지 효율 저하, 연구·전산분야 필수설비 상시가동 등을 미흡사유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10월 말 공공부문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 포상·표창 수여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공공부문 기관의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축 취약기관 대상 현장교육 강화,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감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3.08.18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관리TF팀

녹색도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요!

2013 부산녹색도시포럼 개최

부산조경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명품 그린부산조성을 위해 8월 21일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단체, 대학생,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부산녹색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포럼은 그동안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하던 조경포럼과는 달리 민·관·학이 함께 추진하는 행사로 부산녹색도시 포럼발족 및 선언문 낭독과 더불어 시정연구회 웰빙숲 분과위원회 연구자료 3건에 대한 보고회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정연구보고의 주요내용은 △동해남부선 고가화에 따른 하부공간의 공원화 방안(기단조경기술사 사무소 소장 윤인규) △UN메모리얼파크의 현상설계 자료 분석(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 △에코델타시티 조성의 친환경적 접근(동아대학교 조경학과 양건석 교수)으로 발표에 이어 부산대학교 조재우 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푸른 도시 부산의 이슈와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족되는 부산녹색도시포럼은 그동안 조경에만 국한되었던 주제를 환경과 생태 도시디자인 등 도시의 모든 환경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

8 피크시간대 냉난방 중지, 승강기 운행횟수 조정, 사무실 격등제 조명, 야근시 스탠드 사용 등

9 LED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옥상녹화, 이중창 설치 등

10 이용객 감소, 대상시설 가동률 저하 등에 의한 자연 감축분

이며 부산의 녹색도시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2013.08.20
부산시 녹지정책과

산이 절감될 것” 이라며 “녹색디자인 인증제가 인증제품 선정으로 끝나지 않고 도내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3년간 총 84건(공공공간 2·공공시설물 81·농수산물포장디자인 1)의 인증제품을 선정했다.

2013.08.20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녹색디자인 인증 신청하세요

전남도, 경관·디자인 품격 향상 위해
인증제...26일부터 5일간 접수

전라남도는 공공분야 우수 디자인 선정으로 디자인 산업을 장려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남도 녹색디자인 인증제를 실시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녹색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분야에 속하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 디자인을 대상으로 녹색의 땅 전남의 아름다운 경관에 상승효과(시너지)를 더해 줄 디자인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공고일 현재 완료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 시각매체, 농수산물포장디자인으로 기능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성, 창의성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물 및 현장 심사 과정으로 진행하며 1차 서류심사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5일간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최종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3년간 녹색디자인 인증제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인증 기간 동안 전시회 개최 시 제품 전시, 인증제품 홍보책자 제작·배부, 전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제품 홍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박수옥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녹색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공공시설물 등을 활용하면 도시 경관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공공시설물 등 개발 용역에 투입되는 예

대전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확정

동구 대동3·홍도, 대덕구 장동 옥골 구역... 3개 구역 135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정주여건이 악화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었다.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아 심사단의 현지답사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대전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19개소를 신청하여 ▲동구 대동3구역(동구 대동 5-141번지 일원 12,182㎡) ▲ 동구 홍도구역(동구 홍도동 153-3번지 일원 26,842㎡) ▲대덕구 장동 옥골 구역(대덕구 장동 344-5번지 일원 96,650㎡) 등 3개 구역 135천㎡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상지 선정을 위해 관계관의 중앙부처 방문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3개 구역 135천㎡ 규모의 주거지를 현지개량 방식으로 정비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관할 구청장은 국비 등 예산을 지원받아 2014년부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각종 도시계획 기법을 적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부족한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2018년까지 도로와 공원 및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 지원하여 소규모 지역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주민이 개별적인 개발 및 건축행위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심사 순위에 따라 앞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989년부터 47개 구역에 2,740억 원의 기반시설비를 지원 40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

여 노후·불량 주거지의 획기적 정주환경개선 효과를 거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08.01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건축 재심의 쉬워지고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시군구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심의 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현재는 건축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이의제기도 할 수 없어 민원인이 건축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최근 공사가 중단되는 건축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을 현재 연면적 5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위반 건축물의 위법사항 빠른 시일 내에 해소) 현재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에서의 경제적 이익이 크면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장기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의 1/2을 가중 부과하도록 하였다.

(시·군·구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을 정비하거나 수선할 때, 가격·품질 등 필요한 정보를 집주인이 업체로부터 얻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택의 점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08.05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임대주택법 개정('13.6.4. 공포, '13.12.5. 시행)으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도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관련

〈개정 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의무임대기간 연장(5년⇒10년), 임대료 인상을 제한(연 5%) 및 최초임대보증금·임대료 제한(시행령으로 구체화)을 받는 대신, 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 주택기금 용자** 등 인센티브 추진

* 재산세: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면제(현행 매입임대: 50% 감경)

양도소득세: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0% 적용(현행 다주택자: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

** 주택 개량·매입자금 지원방안(관계기관 협의중)

개량자금: (금리) 연 2.7%, (대출한도) 60㎡이하 1,800만 원, 85㎡이하 2,500만 원

매입자금: (금리) 연 3.0%, (대출한도) 7,500만 원

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 구체화(시행령)

– 임대사업자가 2013년4월1일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② 준공공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등 임대조건 규정(시행령·시행규칙)

–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으로 함

*시·군·구는 전문기관에 시가 산정 검증 의뢰 가능

③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 방법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 제출

- ①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만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
- ②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13.4.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사실 증명
- ③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초임대료 적정성 확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관련

《개정 임대주택법》

◆ 택지비 부담 완화 및 도심내 자투리 땅 활용을 통한 민간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초기 사업비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

*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30~45% 수준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구체화(시행령)

— 공공이 개발하였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만기 정기에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 민간이 개발하였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토지의 토지임대료는 자율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 ① (공공이 개발한 택지) 실제 공급가격 × 3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이자율 / 12
- ② (공공이 보유한 택지) 감정평가금액 × 3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이자율 / 12

②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구체화(시행령)

—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정함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방법》

$$\text{보증금으로의 전환금액} = \frac{1\text{년분 월임대료}}{3\text{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이자율}(\%)} \times 100$$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8.6~9.15) 등을 거쳐 금년 1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2013.08.06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성남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경관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앞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회와 별도로 운영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도시계획심의회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관심의회 특별건축구역 활용예시

2013.08.06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울시, 도시의 정맥 ‘하수도 2030정비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물관리정책에 가장 기본이 되는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서울시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늘어나는데 대비, 하수도의 침수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하수도시설 정비·확충 방안과 함께, 하천 수질오염 저감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또, 하수악취 제로를 목표로 한 세부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하천수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수도시스템과 쾌적한 친수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하수도시설물을 발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관광자원화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수도 장기종합계획인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오는 2015년 4월에 완성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서울시 물관리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써, 20년 단위로 내다보고 매년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09년에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5년이 도래함에 따라 상위계획인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관련계획인 「2030 서울시상수도정비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과 인구, 기후변화 등 도시 여건변화를 반영해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하수도사업 재정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반복되는 취약지역의 하수도 침수대응 능력을 향상,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침수취약지역의 용량확대, 구역분리, 유로변경 등 하수관로 개선을 계획하고, 하수도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서 하류측 수위(배수위) 영향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오수와 우수가 함께 방류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CSOs) 저감용 저류조 확대설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하천수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방류수역인 각 지천과 한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해 계획년도인 2030년에 요구되는 4개 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목표와 처리대상 하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단계별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한다. ▲2030년 하수악취 제로를 목표로 정화조, 하수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원인, 시설물별로 수립한다. ▲최근 100년 전 벽돌식 하수도가 서울광장 지하에서 발견된 것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 하수도를 조사·발굴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하수도역사를 전시하고 관광자원화시킨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물재생센터 현대화계획 등과 연계해 휴식과 편의, 문화가 함께하는 쾌적한 공간을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시민에게 제공하고, 물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에너지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계획도 수립한다.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침수대응능력 향상, 방류수질 강화, 악취 저감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 등 달라진 도시 여건변화를 꼼꼼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5대 도시에 걸맞는 하수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08.08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무안 일대 관광휴양단지 은퇴자시티 개발

개발촉진지구 지정...2018년까지 14개 사업, 1,648억 원 투입

전남 무안에 관광휴양단지와 농공단지, 은퇴자시티 등이 조성되어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를 위해 9일자로 전라남도 무안군 일대 39.3km²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이번 지정·고시한 무안 개발촉진지구는 무안군수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개발계획에는 석류 휴양관광단지 조성 등 무안군의 넓은 갯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농공단지, 은퇴자시티 조성 등 지역특화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계획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개발촉진지구 내 14개 사업에 국비 515억 원, 지방비 184억 원, 민자 949억 원 등 총 1,648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무안 북부 해안권인 해제면 일원에 해수위터파크·헬스케어파크·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석류휴양관광단지와 현정면 일원에 해양스포츠센터와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위한 홀통유원지 및 망운면 일원에 건강보양센터·컨벤션센터 및 공원 등을 건설하는 조금나루 건강보양단지가 조성된다.

서부 해안권인 운남면 일원에는 해양 플랜트부품 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운남농공단지와 삼향읍 일원에 초의선사탄생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며, 내륙에는 청계면 일원에 도시 은퇴자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청계월선 은퇴자시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안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금나루 건강보양단지 주변지역에 무안 노을길 조성사업, 무안 동부지역 몽탄면과 중부지역 청계면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 영산강에서 회산백련지를 거쳐 일로읍으로 연결하는 생태길 및 자전거도로 등 8개 사업에 453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무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산업의 발전으로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8.9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결과

인천시는 8. 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천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시의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품격 높은 공간환경,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과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하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

난해 4월부터 용역을 수행, 최종보고서의 밑그림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는 박미진 인천대학교수, 김경배 인하대학교수,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윤희경 인천건축사협회 부회장, 정두용 인천시 도시디자인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손동필 박사는 인천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서 인천시 정체성과 특성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방향, 국내외 건축정책사례와 인천시의 현황을 분석해 ‘지역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인천’, ‘지속가능한 건축을 선도하는 인천’, ‘수준높은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인천’을 3대 목표로 정하고,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금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인천시의회의 의건을 청취해 보완·개선하고, 9월에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 공청회

2013.8.9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서울시, 전세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9월부터 집중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도모, 주택시장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한
시 차원 대책

서울시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물량 집중 공급 +지속적 행·재정지원 추진〉

공공임대주택 10,021호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는 한편,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대출 등을 비롯한 행·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 주택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세입자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현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12일(월) 밝혔다.

서울시는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임차인은 기존 전세계약 유지를, 임대인은 저금리에 따른 월세전환을 요구하면서 신규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시행되는 서울시의「전월세 안정화 대책」주요 골자는 ▲공공주택 집중공급 ▲전세보증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 추진 ▲서민주거안전 T/F 운영 등이다.

〈9월부터 공공임대주택 10,021호 집중 공급〉

서민 거주 대상 공공 임대주택 10,021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여 전월세 시장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계 /구분 | 국민 임대 | 장기 전세 | 영구 임대 | 재개발 임대 | 다가구 매입임대 | 전세 임대 |
|----------|----------|----------|----------|-----------|-------------|----------|
| 10,021호 | 2,571 | 3,565 | 472 | 1,413 | 1,000 | 1,000 |

(국민임대 : 2,571호 공급) 올 10월에 공급 예정인 국민임대 주택은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에 419호와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의 1,553호,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지구3·4에서 599호 등 총 2,57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맞으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자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해당구에 거주하면서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순위는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구 거주자이다.

(정기전세 : 3,565호 공급) 당초 10월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9월로 앞당겨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양재동 등에 49~114㎡ 형 3,565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급은 그간 시에서 공급했던 물량 중 최대물량이라 전세를 찾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구는 3,144,65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688,050원 이하이어야 한다.

(영구임대 : 472호 공급) 12월 입주 예정인 물량에 대하여 8월 말에 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다. 서초 보금자리 100호, 강남 보금자리 192호 등 총 472호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이다.

(재개발임대 등 : 1,413호 공급) 오는 10~12월 사이에 준공 예정인 5개 재개발구역(상봉8, 보문4, 쌍문1, 응암3, 불광4)에서 총 313호 공급할 예정이다. 상봉8구역에서 24호, 보문4 구역에서 79호, 쌍문1구역에서 50호, 응암3구역에서 60호, 불광4구역에서 1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에 의거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 및 분양 포기자에게 공급하고, 공급 후 공가가 발생할 경우 타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여유 공간 1,100호는 9월 중에 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며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와 동일하다.

(다가구매입임대 : 1,000호 공급) 민간시장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 10월까지 500호를 확보·공급하고 12월까지 추가 500호를 공급하여 하반기에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자, 장애인 등 등록 중 교부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에게 부여된다.

(전세임대 : 1,000호 공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1,000호를 9.2(월)부터 접수한다. 서울시내 기존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다. 1순위 미달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 자에게 공급한다.

호당 전세금 지원 한도는 7천5백만 원으로,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375만 원), 월임대료는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이다.

접수는 1순위(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9

월 2일부터 5일까지, 2순위는 9월 9일부터 12까지 한다. 다만, 1순위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자치구의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접수받지 않으니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중심, 전세보증금 대출 등 다각도 세입자 지원

세입자에 대한 종합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 미반환 받은 임차인에 대한 대출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화 및 방문상담 외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전월세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2200만원까지 은행권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다.

특히, 올 7월부터는 SH임대주택 당첨자 중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출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대출 대상은 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임대차 계약종료 전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2억원 이하 SH공사 관리 임대주택 세입자로서 대출한도는 1억 8천만 이하 연리 3%이다. 이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기간 내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해 입주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과 계약해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간 관계상 방문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지난 2월 말 오픈하여 온라인 민원상담, 임대주택 입주자 맞춤형 통합정보제공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일평균 20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추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계층의 월임대료 보조지원 및 주거비 부담감소를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이고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도 6인 가구 기준 최고 6만 5천에서 7만 2,500원으로 확대되는 등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의 월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금융지원"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입주예정자에게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5,600만원을 연리 2%로 대출 지원한다.

또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및 입주자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임대보증금의 70% 이내(최대 1천 만 원)로 연리 2%, 10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며 신청 접수는 SH공사에서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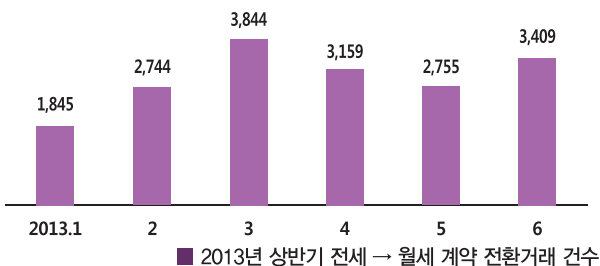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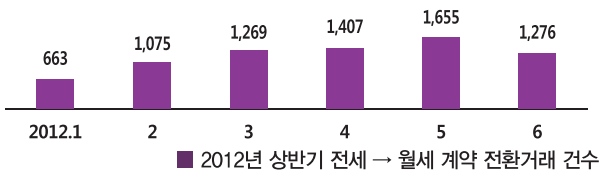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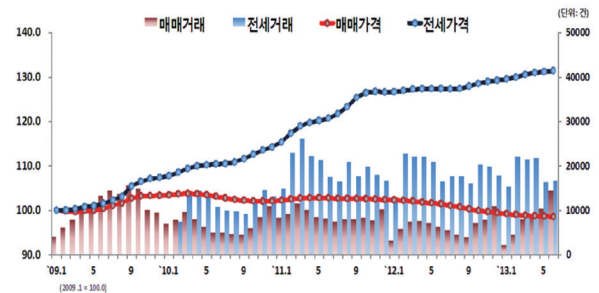
〈서민주거안정 T/F 지속운영, 안정적 주택공급 유지 및 시장질서 교란 대응〉

한편,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서민주거안정 T/F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점검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주택시장 왜곡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 평균 전세가는 1.72% 상승했고, 특히 아파트의 전세가는 2.2% 상승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전환된 거래 건수의 경우, '12년 6월(1,276건)과 대비할 때 '13년 6월(3,409건)에는 약 2.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월세 전환 증가 현상에 대해 전세 수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분석하면서 신규 전세 물량 감소를 시장 불안의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상반기(1~6월) 매매가 강폭 -0.99%, 강남 -0.79% / 전세가 강폭 1.47%, 강남 1.96%



이에, 이경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시장이 전세 임차인의 재계약 증가와 임대인의 월세 전환 요구 등으로 전세가 격이 상승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집중 공급하고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다각도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최대한 도움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3.08.13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지하철 6·7호선 유희공간, 시민편의 공간으로 개발

새로운 상업·휴게공간으로 조성, 시민편의 향상 및 수익창출 통한 경영개선

지하철 6·7호선의 유희공간이 시민 생활의 편리성과 휴식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기춘)는 8.2(금)부터 9.12(목)까지 40일 동안 입찰공고를 통해 6·7호선 역사내 유희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찰대상은 지하철 6·7호선 76개역에 있는 총면적 20,115㎡의 유희공간이다. 공사는 개발면적 가운데 18,222㎡(6호선 36역 7,444㎡, 7호선 40역 10,778㎡)는 상업공간으로, 1,893㎡(6호선 889㎡, 7호선 1,004㎡)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대상은 기존에 운영 중인 상가나 점포로 사용되던 곳이 아니라 역사를 시민편의 중심으로 재배치하기 이전의 옛 역 무실, 기능실 등 지금은 쓰지 않는 역사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상업공간의 10%를 웃도는 휴게공간에는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동종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추진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공사는 상가와 휴게공간 조성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한편, 상업공간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도록 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사는 사업의 규모와 초기 시설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임대료 등 연장조건에 합의한 경우에 한해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찰공고는 9.12(목)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와 공사 홈페이지(www.smrt.co.kr)를 통해 동시에 공고한다. 입찰참가를 원하는 법인이나 공동수급체(권소사업)는 9.10(화) 10:00부터 9.12(목) 16:00까지 공사 계약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입찰 참여 하면 된다. 입찰결과는 9.13(금) 11:00 온비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6·7호선 유희공간 개발로 시민의 지하철 이용편의 향상은 물론 부대수익 창출을 통한 건전한 재정 자립 기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공간개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2013.08.13
서울특별시 서울도시철도공사

도시재생마을 창조벨트 구축사업, 민·관 거버넌스로 푼다!

부산시,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자체간 경계의 벽을 허물고 마을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역가치 창출과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원도심지역인 서구, 중구, 동구와 함께 ‘도시재생마을 창조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은 마을재생사업으로 구축된 26개 마을의 공동체가 개별 활동과 사업의 영역을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한 협동과 연계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공동 마케팅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휘해 고용 및 관광벨트로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마을 창조벨트 구축사업’은 △착한마을 품앗이 사업 △창조벨트 스토리텔링 마을지도 제작 △마을센터 공동작업장 활용 협동경제 플랫폼 구축 △마을체험 착한여행 프로젝트 추진 △도시재생 창조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 △낙후마을 집수리 자원봉사단 운영 △산복도로 마을 순환미니버스 운영 △산복마을 홍보 전통조각보 만들기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는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민·관 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사업추진을 위탁하는 등 민간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무를 총괄하면서 품앗이사업팀, 플랫폼·허브 구축팀, 커뮤니티맵핑 구축팀, 창조인력 양성팀, 착한여행팀을 운영하는 민간 전문가 주축의 ‘창조벨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은 우선 품앗이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 주민역량 강화사업인 ‘부산 품 마켓’을 이번 달 17일 탁발골 행복센터 앞 테마공원에서 시작하였고, 다음날인 18일에도 오색빛갈공방과 금수현의 음악살롱 앞마당에서 연이어 개최되었다.

협동과 상생의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와 도시재생특별법 연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부산에서 추진되는 이번사업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재생의 공간적 가치 재생과 공동체 재생의 결과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상승 발전하고, 지자체간, 마을간 또는 주민간 연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지 그 성과가 주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 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지역협력의 상생적 가치 창출과 창조경제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라고 전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 시 전역으로 연계협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2013.08.13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제5회 강원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동계올림픽 개최지 위상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창출 기대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공공디자인 모델 창출을 위하여 제5회 강원도 공공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모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하는 실용 디자인의 창출'을 주제로 지역이 지닌 자연, 역사, 문화예술 등 유·무형의 자원과 공공공간 또는 공공시설물과 연계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의 위상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공모분야에는 공공시설 유희지, 광장, 공원, 가로공간, 산책로, 골목길 등 공공공간부문과 상징조형물, 랜드마크 시설물, 휴게 및 편의시설, 안내간판 등 공공시설물부문의 재생 또는 특화를 대상으로 한다.

작품 접수기간은 2013.10.1~10.10까지 10일간이며, 심사 및 평가는 가장 강원도적이고 실용성, 심미성, 조형성, 창의성,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지며, 대상 1점(1천만원) 등 총 9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여 총 2천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품은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11.1일 발표될 예정이며, 본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작품은 향후 강원도 공공디자인 사업시 표준디자인 및 공무원과 주민의 우수디자인 교육·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공모전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및 공모전 전문 포털사이트 '씽굿'(<http://www.thinkcontest.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3.08.22
강원도청 기획관실

다양한 디자인의 옥외광고를 한눈에 본다!

제21회 대구옥외광고대상전

대구옥외광고대상전은 대구시와 사)대구옥외광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우수광고물을 발굴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업의 질적 수준향상 및 옥외광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컬러풀도시 대구의 아름다운 사인문화 조성을 테마로 사인디자인 개발을 위해 사인디자인 공모전 시상 및 수상작품 전시, 간판정비사업 사례 전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통합교육 등이 열리며, '제4회 국제 LED & DISPLAY 박람회'와 함께 개최한다.

사인디자인 공모전의 경우 횡수를 거듭하면서 다양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 작품이 출품돼 광고디자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사인디자인 공모전은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3개 부문에서 진행됐으며 8월 20일 작품을 접수해 대구·경북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 등 5명의 심사위원이 최종심사 후 수상작을 결정했다. 수상내용은 일반인 부문 대상 1점(창작모형광고물), 최우수 2점, 우수 3점, 장려 4점 등 총 10점으로 영예의 대상수상자는 미림사 김덕용 씨가 출품한 '올레길'이 선정됐다. 학생작품으로는(창작간판디자인) 대상 1점,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장려 2점 등 총 5점으로 영예의 대상수상자는 영진전문대학 이현지 씨가 출품한 'U.PLEX'가 선정됐다. 수상작을 포함한 총 출품작 51점은 대구옥외광고대상전 기간에 전시되며, 우수작품은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2013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대구옥외광고대상전을 통해 고품질 사인물 제작을 유도해 옥외광고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좋은 간판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 대구의 옥외광고문화를 한층 높이겠다."며 "특히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디자인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이용객에게 대구의 아

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 창작모형광고물 대상(左) 및 최우수상(中,右) 예시

2013.08.27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 시행

도시경관을 산뜻하게, 광고물 관리는 효율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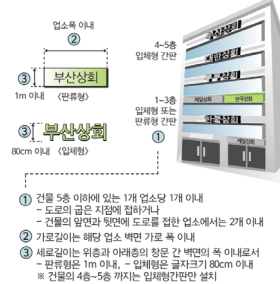
부산시는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기존에 구·군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기초자치단체별 간판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관리기준 등을 보완하고, 간판관리 업무를 시에서 일괄 조정하고 통합하는 등 부산시 광고물 정책 일원화를 통한 간판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조례는 가로형 간판·세로형 간판·돌출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는 종전 3개에서 2개 이하로 줄었으며, 다만 도로의 굵은 지점의 업소 등은 추가로 1개를 더 설치 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5층 이하 업소별 1개만 설치 가능하며, 세로형 간판은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현수막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거리의 불법 현수막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으며 3층 이하에 표시하는 가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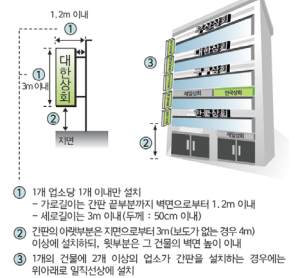
간판과 돌출간판에 한해 광고물실명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광고주·광고물 제작 업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산시 도시경관담당자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부산의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라면서, 시민들의 간판정비사업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간판제도의 홍보를 위해 간판 리플릿을 제작, 9월 초에 구·군 및 간판허가·신고대행 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가로형간판(시 조례 제5조)



돌출간판(시 조례 제7조)



■ 간판설치 예시

2013.08.28

부산광역시 도시경관담당관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공공주택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디자인 다양화 등 9월 중 시범사업 시행, 향후 보완·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앞으로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도입 등을 통해, ‘저가 공공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품격 향상을 위해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올해 9월 중 LH사업지구 중에서 선정)에는 창의적인 디자인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블록 세분화, 설계발주 요건 완화, 설계자 실명제 등이 도입되며, 다양한 평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라멘구조(보-기둥) 채택과 발코니 확장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에는 채광창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격 있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공주택이 저가주택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부심도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13.08.29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개발과

이슈와 연구동향 #4

충간소음 (2008~2013)

글·진행 박주희

최근 충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폭력·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충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건수 및 피해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최근 충간소음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합리적인 충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하여 '충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충간소음 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슬래브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강화하고, 슬래브 두께와 소음 차단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바닥구조로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시험실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해 실제 소음과 측정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중량충격원에 임팩트볼을 추가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중량바닥충격을 측정방법이 개선되었으며, 소음완충재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평가방법도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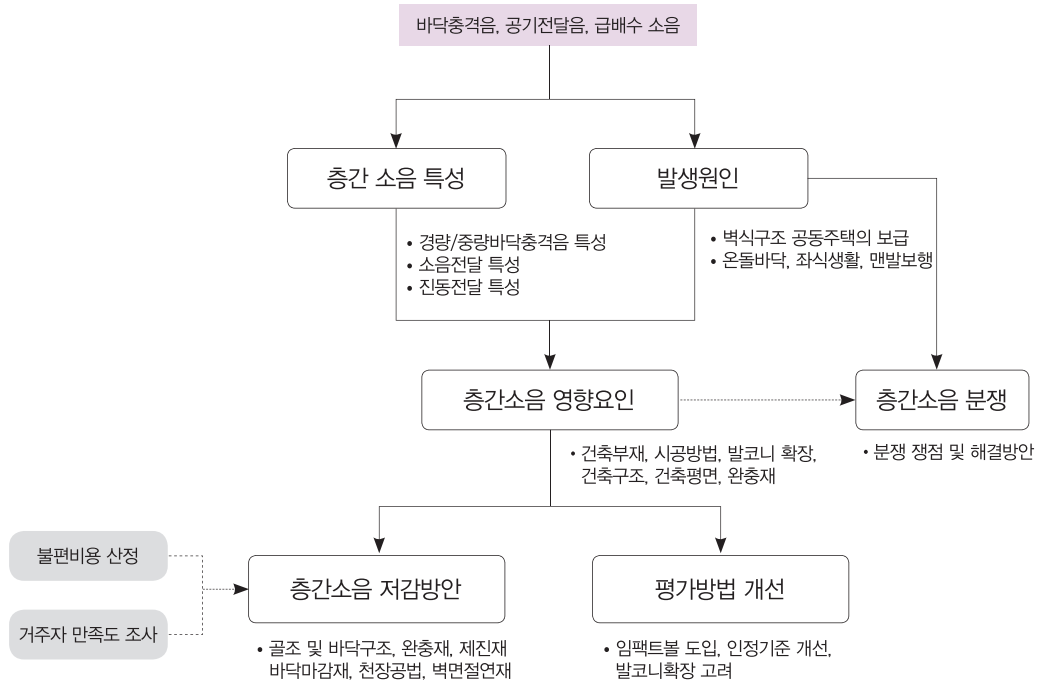
국내 충간소음과 관련한 연구는 공동주택 보급이 활발해진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충간소음 개선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연구를 통해 살펴본 충간소음 개선 방법은 슬래브 두께 및 구조개선, 임팩트볼 측정방법 도입, 완충재 성능향상 등이 있으며, 이는 최근 개정된 충간소음 개선 방향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국내 충간소음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세부 주제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충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인접세대간에 전달되는 거주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리로, 건축부재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 대부분을 충간소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충간소음은 바닥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바닥 충격음과 피아노 소리와 같은 공기전달음, 설비배관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으로 구분된다. 이중, 우리나라에서는 온돌바닥 구조와 좌식생활을 하는 주거문화 특성상 맨발보행으로 인한 바닥충격음이 주요 소음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충간소음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 주제별로는 충간소음의 특성 및 각 소음원별로 차단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분석, 충간소음 저감방안 연구, 현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밖에 충간소음분쟁의 이슈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와 충간소음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 조사, 충간소음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추정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충간 소음



■ 충간소음 연구 흐름도

충간소음의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충간소음의 주요 소음원은 바닥충격음과 공기전달음, 급배수 소음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충간소음 분쟁의 주요 원인인 바닥충격음은 경량바닥충격음과 중량바닥충격음으로 분류된다. 경량충격음은 하이힐 소리나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리가 해당되며, 중량충격음은 사람의 보행 및 어린이가 뛰 때 발생하는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로 슬래브 진동에 의해 전달되며 잔향이 남아 경량충격음에 비해 더 불쾌감을 준다. 다음은 바닥충격음을 중심으로 한 충간소음의 특성 분석 및 각 소음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 영향인자

: 이병권 (2013)

- ▶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슬래브 두께 및 완충재의 성능, 조인트필러(측면 완충재)의 시공방법, 환기배관 시공에 따른 단면손실 등이 있음.
- ▶ 공기전달음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면밀도(기밀성능)가 주요한 원인이며, 소음 전달 경로에도 영향을 받음(경로가 짧으면 차음성능 저하).
- ▶ 급배수 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배관의 위치(당해층인지 하부세대를 관통하는지)와 배관의 재질, 천장의 단면구조에 따라 하부세대로 전달되는 소음에 영향을 줌.
- ▶ 층간소음의 구성요소인 바닥충격음과 공기전달음은 부재 자체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시공 상에서의 오차 및 오류, 시공방법에 대한 설정, 재질에 따라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신축공동주택의 상하층간 소음 및 진동전달 특성과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관한 연구

: 함진식 (2013)

- ▶ 실험주택이 아닌 실제로 건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중량 및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과 소음 및 진동 전달 특성을 분석함.
- ▶ 소음전달은 충격을 가한 가진층에서 상하층으로 멀어질수록 소음레벨이 낮아지는 반면, 진동전달은 가진층의 직상·하층은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나 상하층으로 멀어져도 진동레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슬래브 두께가 두꺼울수록 소음 및 진동의 전달특성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경량 및 중량 충격음 모두 차음성능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
- ▶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실의 크기가 작을수록 차음성능이 낮아짐.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에 따른 바닥 충격음 측정 및 평가 연구

: 송국곤·김선우 (2010)

- ▶ 현재의 바닥 충격음 측정 방법은 음원실 및 수음실의 발코니 확장 여부를 고려하지 못함. 측정면적에 발코니 공간의 포함 여부에 따라 수음실의 측정방법(측정위치)이 달라지며,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값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 발코니 확장 시기(사전/설계변경/사후)에 따라 바닥 구조에 차이가 있으며, 사전 확장 및 설계변경을 통해 확장한 거실은 측정방법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

나, 사후 확장한 거실은 측정방법에 따라 충격음 저감 레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후 확장 시에는 벽체와 바닥이 일체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실평면형태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음특성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 박현구·박찬웅·김선우 (2008)

- ➡ 음원실의 거실평면이 일반형(베란다설치형)인 경우가 베란다 확장형에 비해 경량 및 중량충격음 차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 ➡ 공간의 배치형태에 따라서는 일자형 배치보다 분리형 배치가 경량 및 중량충격음 차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완충재 구성방법에 따른 동탄성계수 및 중량바닥 충격음 저감특성 평가

: 김경우·정갑철·손장열 (2008)

- ➡ 완충재 종류와 두께, 완충재 적층에 따른 동탄성계수를 살펴보고, 동탄성계수와 바닥충격음 저감량과의 관계를 살펴봄.
- ➡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는 경량충격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탄성계수가 증가하면 경량충격음 저감량은 감소함.
- ➡ 중량충격음 저감량은 완충재의 재질과는 상관성이 떨어지고,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저감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다층으로 구성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측정결과와 계산치를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일구성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를 알면 다층구조의 동탄성계수를 유추할 수 있음.
- ➡ 동일한 재질의 완충재의 두께가 증가될수록, 단일구조보다 적층한 구조일수록 동탄성계수가 낮아져 충격음 저감량이 높았으며, 적층순서와는 관계가 없음.

신축공동주택에서 벽식구조와 라멘구조의 바닥충격음 특성

: 김재철·조성우·장승재·
김용태·이경희 (2008)

- ➡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라멘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경량충격음레벨이 낮게 분석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 동일한 라멘구조일 경우 슬래브 두께가 증가하면 경량충격음에 비해 중량충격음 저감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됨.

충간소음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충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슬래브 두께 및 물성, 구조형식, 완충재 성능, 시공방법, 설비시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충간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결과는 경량충격음 저감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 중량충격음에 대한 소음저감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량충격음은 슬래브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 소음으로 슬래브의 두께, 질량, 면적, 단부의 고정조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중 완충재의 형상과 물성치 조절을 통한 차음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개선을 위한 완충기 차음바닥구조

: 이종익·박근준 (2013)

- ❶ 완충재의 재료나 구조에 상관없이 저주파대역(63Hz)에서의 중량충격음 저감량이 현저하게 떨어짐. 저주파대역에서의 공진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MN/m³ 이하의 동탄성계수를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함.
- ❷ 슬래브 두께 증가 시 바닥충격음은 줄일 수는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골조의 시공물량이 증가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슬래브 두께(150mm)를 유지하고 완충기를 50mm 두께로 배치하며, 그 위에 판넬(10mm)과 완충재(20mm) 적층한 후, 그 위에 모르타르(45mm이상)를 타설하고 바닥마감재로 마무리하는 완충기 차음바닥구조를 제안함.

건식 이중바닥에서의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확보

: 김경호 (2012)

- ❶ 건식 이중바닥은 습식 뜬바닥에 비해 공기 단축, 건물의 경량화, 우수한 난방효율, 유지보수의 용이함, 친환경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확보 및 보행감 확보, 경제성(시공성 포함) 문제로 인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❷ 건식 이중바닥의 충격음 차단성능 개선을 위해 방진고무를 지지대 하부에 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무의 경도를 낮게 하여 탄성력이 확보될수록 차단성능은 향상되지만 구조의 안정성과 보행감에는 지장을 주게 됨. 안정적인 보행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도 70이상의 고무가 필요하나 반대로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 바닥에 시공되는 방진고무만으로는 국내 바닥충격음 관련 법규를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층부 천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저감이 필요함. 하층부 천장 공기의 탄성 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며, 차음구조로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우물천장 및 천장몰딩 공법, 통기성 벽면 절연재 사용 등이 있음.

법제화에 따른 바닥충격음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 유승엽 (2012)

- ▶ 충격음 성능 조사 및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법제화 이후 경량충격음에 있어서는 저감효과가 나타났으나 중량충격음에 있어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 ▶ 중량충격음 저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완충재와는 다른 물성을 가지는 점탄성 제진재(주로 기계진동 등에 있어 사용) 사용을 검토함. 제진재 사용시 완충재를 사용한 바닥 구조보다 저감성능이 우수하고, 기존 완충소재에 비해 비교적 얇은 두께로 시공이 가능해 리모델링 주택이나 기존 건물의 보수보강에 효과적이며, 청감적인 충격음 개선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

벽식구조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개선에 대한 연구

: 김선우 (2012)

- ▶ 라멘구조가 벽식구조에 비해 중저주파수 대역에서 양호한 특성을 보였으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도 우수하게 나타남. 이는 라멘구조의 기둥과 보가 충격력에 의한 슬래브의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으로 보임.
- ▶ 바닥충격음 저감방법으로는 경량충격원의 경우 마감재를 사용하여 바닥으로의 충격력 입력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완충재의 적절한 사용으로 충격에너지의 구조체 전달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중량충격원의 경우에는 충격에 의한 바닥 진동을 억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 진동 억제를 위해서는 질량과 강성이 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건(두께, 면적, 지지조건)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음.

층간소음 대응 유닛 모듈러 경량합성바닥 구조시스템

: 이상섭·홍성엽·박금성·
허병욱·배규웅 (2012)

- ▶ 층간소음 저감, 슬래브 경량화, 개별유닛 조인트와 연계한 네 가지의 경량합성바닥 구조시스템 기술을 도출함. 제시된 바닥구조는 스티드형 바닥구조, 스티드 이중패널형 바닥구조, 스티드 이중바닥형 바닥구조, 테크형 바닥구조이며, 이중 가장 진동 저감에 우수한 구조는 스티드 이중패널형 바닥구조임.

노후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및 급·배수 소음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 주문기·한명호·오양기 (2010)

- ✦ 스티드 이중패널형 바닥구조는 스티드 상하 플랜지가 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콘크리트 사이에 단열재가 위치한 바닥구조 시스템.
- ✦ 바닥충격음은 슬래브와 보강재의 일체화가 충격력 저감에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중량바닥충격음의 경우 슬래브 강성 보강시 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남.
- ✦ 급배수 설비소음에서는 급수음 보다 배수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수형변기로 교체 하였을 때 배수음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 당해층 배관방식의 경우 안방에 비해 욕실에서의 배수음 저감량이 컸으며, 저주파 대역보다는 중고주파 대역에서의 저감량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배수관 재료의 경우 일반 PVC 관에 비해 주철과 3중엘보를 적용하였을 때 소음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시공의 편리성이나 공사비를 고려했을 때 3중엘보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 따라서 중량바닥충격음과 급배수 설비소음의 경우 강성보강과 함께 당해층 배관방식 적용과 배수관 재료를 변경할 경우 실내음향성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라텍스 모르타르 바닥구조의 바닥시공구법에 따른 바닥충격음 개선효과

: 이원학·한찬훈 (2010)

- ✦ 혼합비율이 9%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SBR 라텍스를 혼합한 모르타르는 폴리머 필름막 형성을 통해 압축 및 인장강도를 증가시켜 경량충격음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반건식구조에서 사용된 EVA완충재를 사용하면 저주파수 대역의 중량충격음에서도 저감효과를 보임.
- ✦ 서로 다른 매질의 적층(슬래브+단열재+경량기포+마감모르타르)으로 구성된 습식구조가 반건식구조보다 경량·중량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바닥충격을 평가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SO 및 미국, 독일 등에서는 바닥 충격을 측정시 하이힐 소리와 유사하도록 고안된 경량표준충격원(Tapping Machine)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좌식생활을 하고 맨발로 활동하기 때문에 보행 및 어린이의 뛰는 소리와 유사한 중량충격을 성능에 대한 평가(Bang Machine)도 함께 사용해왔다. 이후 평가방법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뱀머신(Tire)이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저주파대의 소음패턴과 달라 중량충격을 측정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충격원과 가장 유사한 임팩트볼을 활용한 평가방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기준의 문제점

: 오양기·주문기 (2012)

- ➡ 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국제표준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함.
- ➡ 경량바닥충격음 인정기준의 문제점으로는 수음실 흡음면적 산정을 위한 용적의 불명확성, 카펫이나 흡음성 가구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거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표준을 그대로 차용한 표준 잔향시간(0.5초) 기준, '실제의 환경에서 들리는 그대로의'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 중량바닥충격음과 관련해서는 측정위치에 관한 인정기준의 문제점이 있음. 국제표준 ISO 140-7에서는 소음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공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 인정기준 제 20조에서는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높이 1.2m, 벽면으로부터 0.75m 떨어진 지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규정된 특정점들이 대체로 소리의 중첩이나 상쇄가 같은 경향으로 발생하는 공간적으로 고르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측정 및 평가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바닥구조 보행감 문제 및 평가방법

: 이병권 (2012)

- ➡ 밀도 및 동탄성계수가 낮은 바닥충격음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바닥충격음 완충성능은 우수하나 상부 온돌층의 균열·침하 등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이로 인한 바닥충격음 성능이 저하되며, 맨발 보행시 보행감 문제가 발생함.
- ➡ 미세한 진동, 특히 보행 후 발에 전달되는 후기 진동에 대한 감각을 평가할 수

있는 보행감 평가방법이 필요함.

- 기존의 진동 피크값에 의한 물리적 평가방법보다는 초기감쇄시간(EDT)이 보행감에 대한 실제 평가결과와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현황 및 개선방향

: 정갑철 (2010)

- 표준바닥구조 제정 당시 중량충격음 기준 만족을 위해서는 슬래브두께가 240mm 이상 되어야 하나, 슬래브 두께를 늘리는데 따르는 비용증가의 부담으로 인하여 210mm의 표준바닥구조안이 채택됨.
- 슬래브 두께 210mm인 바닥구조의 성능평가 결과, 경량바닥충격음 기준에는 대체로 만족하는데 비해 중량바닥충격음 법적기준 만족률에는 큰 효과가 없었음.
- 튼 바닥공법(완충재 사용)은 경량충격음의 차단에는 효과가 있으나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저주파 증폭문제가 발생함. 현재 측정에 사용하는 뱀머신 중량충격원은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충격원(아이들 뽀박질 및 점핑)과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충격원과 유사성이 있는 임팩트볼의 도입이 필요함.
- 임팩트볼의 장점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음특성과 비슷한 충격원으로, 뱀머신 측정결과에 비하여 완충재 특성에 따른 차음성능 변별력이 높고 측정편차가 작게 나타나며, 슬래브 공진과는 관계가 없는 주파수 대역이므로 법적기준 충족률이 높아짐. 또한 무거운 뱀머신 장비에 비해 측정 방법이 간단하고, 뱀머신은 타이어 공기압에 따라 측정값이 변하는 반면 임팩트볼은 높이만 유지하면 충격량 변화가 적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방법 비교 및 분석

: 박현구·김선우 (2009)

- 중량충격원에 비해 경량충격원에 대한 측정방법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음원실을 확장형으로 측정한 경우 평가 값이 높아진 반면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평가 값이 낮게 나타남.
- 따라서 발코니를 확장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평가시, 음원의 위치는 사전·사후 확장에 관계없이 경량충격음은 확장형 방법으로, 중량충격음은 비확장형 방법으로 평가하고, 수음점의 위치는 경량·중량충격음에 상관없이 사전확장일

경우 확장형방법, 사후확장의 경우 비확장형 방법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함.

현행 중량바닥충격음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주관평가 실험

: 신훈·김선우·장길수 (2009)

- ▶ 단일수치평가량을 기반으로 중량바닥충격음의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감적 특성이 단일수치평가량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저감방법임.
- ▶ 중량바닥충격음에 대한 저감의 한계나 제약 등을 고려하여, 기존 단일수치평가량을 청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특정주파수 대역에 의해 평가가 결정되는 평가방법보다는 전체 주파수 대역이 평가에 반영되는 산술평가방법이 중량바닥충격음 평가에 보다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중량충격원별 바닥충격음 레벨 저감량의 비교 분석

: 신훈·백건중·송민정·국찬·장길수 (2008)

- ▶ 임팩트볼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중량충격원의 차이가 바닥충격음 레벨감소량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비교함.
- ▶ 임팩트볼의 경우 완충재의 배열구성에 따라 주파수 레벨 저감 특성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충격원의 차이에 따라 바닥충격음 저감량 주파수 특성도 변함.
- ▶ 충격원의 차이에 따라 완충재의 저감량의 양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뱅머신에서 저감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던 완충재가 임팩트볼 평가시에는 가장 적은 저감량을 나타냄.
- ▶ 충격원이 다른 경우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저감량 특성분석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바닥충격음 평가체계 검토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충간소음 분쟁의 이슈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충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소음 분쟁시 문제가 되는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충간소음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는 시공결함, 즉,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에 못 미치는 바닥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생활에서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거주자간의 분쟁이 더 빈번하지만, 소송 및 신고·접수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거주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이 대다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소음 하자에 관한 쟁점고찰

: 김민정·박준모·김옥규·서덕석·
최정현 (2011)

-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하자분쟁은 차음 설계 및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의 문제와, 거주자의 생활습관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는 사용자 문제로 구분됨. 특히 생산자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은 하자소송의 원인이 되는 주요쟁점 사항임.
- ➡ 사용자에 의한 문제는 주로 거주자의 생활소음이 원인으로 세대내·세대간·통로 및 공용 공간 모두 비슷한 양상의 문제가 발생함.
- ➡ 생산자에 의한 문제는 소음진동규제법의 바닥 슬래브의 바닥충격음기준 초과 및 배관·덕트에서의 하자로 인한 소음문제가 주를 이룸.
- ➡ 설비관련 하자소송의 경우 법적대리인(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1차적인 하자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인들의 자질에 대한 검토와 판단기준 정량화가 필요함.
- ➡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하자소송의 경우 표준바닥구조의 기준 공표 후 사업승인이 행해진 사례에서만 생산자가 하자 및 배상책임을 인정함.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대한 기준조사

: 조선준·김태희·한찬훈 (2010)

- ➡ 층간소음 분쟁 원인으로는 시공결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판례를 보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 분쟁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적으며, 대부분 간단한 보수공사나 당사자간의 화해 및 합의로 처리됨.
- ➡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측면에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분쟁 해결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법률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 분쟁의 경우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이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 또 건축 기술적으로는 유연한 바닥 마감재의 사용, 뜬바닥 구조나 완충재 사용, 슬래브 강성을 높이고 중량화 하는 방법, 하부층의 천장을 차음구조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

그밖에 실제 거주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닥충격음의 특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층간소음개선을 위한 비용 발생시 지불의사금액 추정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연구결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연간 약 5만원 정도였으며,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경우·최현중·김영수·
양관섭 (2010)

- ➡ 충격음 크기에 대한 인지정도는 경량충격음보다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인지정도가 더 높았으며, 충격음에 대한 느낌에서도 중량충격음이 좀 더 신경 쓰이는 것으로 나타남.
- ➡ 소음이 신경 쓰이는 시간대는 저녁시간대(18시~22시)와 밤시간대(22시~24시)로 주로 거실에 있을 때 가장 거슬리는 것으로 나타남.
- ➡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 도입 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 주민의식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거주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한 소음으로 이웃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으며, 위층에서 다소 소음이 발생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는 주민의 의식이 높았음.
-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건물의 구조개선에 비용이 발생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구조개선 할 용의가 없다는 의견이 46.7%, 100만원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42.5%로 대부분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층간소음의 불편비용 추정

: 유승훈·이주석 (2008)

- ➡ 층간소음의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들의 시행 및 적용에 앞서 비용대비 효과가 충분한가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관리기준을 강화할 경우 수반되는 비용을 주민들이 수용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에 널리 활용되는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지불의사금액(WTP), 즉,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비용은 가구당 연간 54,442원으로 나타남.

- ▶ 응답자의 주거 면적이 넓을수록, 층간소음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응답자 일수록 지불확률이 높음.
- ▶ 응답자의 사회, 경제, 주거적 특성 중 주택의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들은 응답자들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WT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총간소음] 키워드 분석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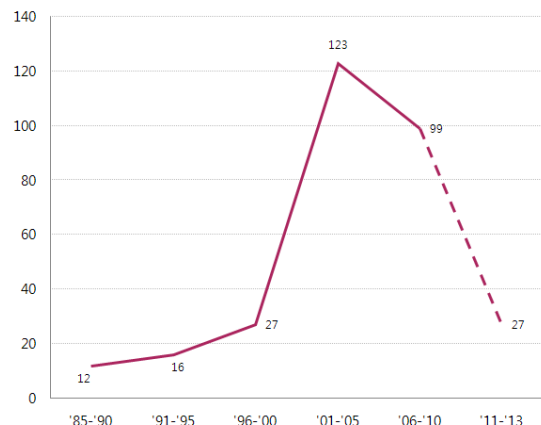
- 검색 키워드 :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공기전달음, 배수소음
- 검색 사이트 : <http://www.auric.or.kr>, <http://www.ndsl.kr>

1. 국내 발표 논문 수

| 년도 | '87-'90 | '91-'95 | '96-'00 | '01-'05 | '06-'10 | '11-'13 |
|-----|---------|---------|---------|---------|---------|---------|
| 논문수 | 12 | 16 | 27 | 123 | 99 | 27 |
| 증감률 | — | 33% | 69% | 356% | -20% | -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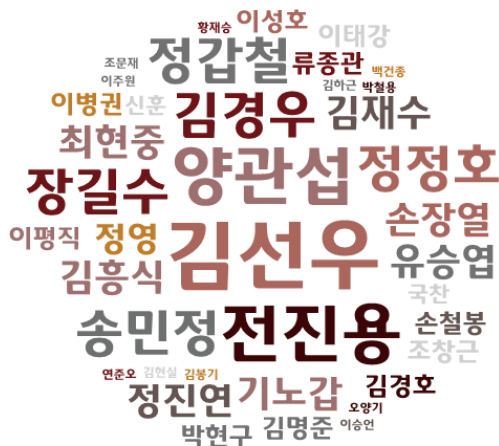
2. 주요저널

| 순위 | 저널명 | 논문수 |
|----|--------------------|-----|
| 1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146 |
| 2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46 |
| 3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 18 |
| 4 | 소음진동 | 11 |
| 5 | 한국생활환경학회지 |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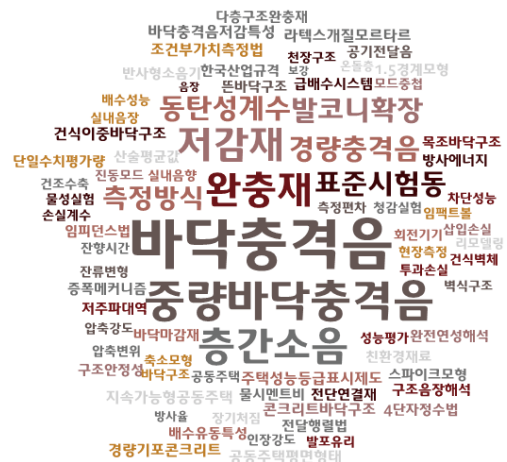


■ 층간소음관련 논문발표 증감 추세

3. 국내 주요 연구자



4. 주요 관련 키워드



[충간소음] 관련 주요 논문 리스트 (2008~2013)

| | 제 목 | 저 자 | 수 록 지 | 발행년 | 권 | 호 |
|----|--|-----------------------------|----------------------|------|----|---|
| 1 | 발포유리 혼합기포 콘크리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영향에 관한 연구 | 윤창연 ; 정정호 ; 김명준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2013 | 23 | 5 |
| 2 | 천장구조 개선을 통한 충간소음 저감 | 김경호 | 소음진동 | 2013 | 23 | 3 |
| 3 | 공동주택 충간소음 실태 및 현황 | 이재원 | 소음진동 | 2013 | 23 | 3 |
| 4 | 신축공동주택의 상하충간 소음 및 진동전달 특성과 충간소음 차단성능에 관한 연구 | 함진식 |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2013 | 24 | 2 |
| 5 | 충간소음 해외 기준 및 측정 평가 방법 | 정정호 | 소음진동 | 2013 | 23 | 3 |
| 6 |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슬래브 보강 | 이병권 | 소음진동 | 2013 | 23 | 3 |
| 7 | 수음실 잔향 시간변화에 따른 바닥충격음레벨 특성 - 잔향실을 중심으로 - | 정정호 ; 김정욱 ; 정재균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2013 | 23 | 3 |
| 8 | 건식이중바닥구조의 중량충격음에 대한 실험적 평가 - 지지구조 및 천장구조 구성에 따른 영향 - | 연준오 ; 김경우 ; 최현중 ; 양관섭 ; 김경호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2013 | 23 | 1 |
| 9 | 자철석 혼입 모르타의 기초물성 연구 | 윤상천 ; 양성철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 2013 | 17 | 3 |
| 10 | 공동주택 충간소음 관련 제도개선 방향 | 조재훈 | 소음진동 | 2013 | 23 | 3 |
| 11 | 공동주택의 충간소음 차단성능 영향인자 | 이병권 | 설비저널 | 2013 | 42 | 3 |
| 12 | 법제화에 따른 바닥충격음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 유승엽 | 소음진동 | 2012 | 22 | 1 |
| 13 | 공기 전달음 및 충격음의 측로 전달 측정 | 정정호 | 소음진동 | 2012 | 22 | 5 |
| 14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저감공법별 보행감 평가 | 이병권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2 | - | - |
| 15 | 바닥충격음 인정구조 성능 현황 | 정진연 ; 임정빈 ; 이성찬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2 | - | - |

| | 제 목 | 저 자 | 수 록 지 | 발행년 | 권 | 호 |
|----|---|-----------------------------|---------------------------------------|------|----|----|
| 16 | 천장 타공에 따른 바닥충격음 특성분석 및 천장 공기유동 시스템 개발 | 최현중 ; 김경우 ; 연준오 ; 양관섭 ; 김경호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 논문집 | 2012 | - | - |
| 17 | 프리패브 주택의 바닥충격음 특성 | 이원학 ; 김경우 ; 임석호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 논문집 | 2012 | - | - |
| 18 | 완충재 장기처짐과 ISO 20392 대응 연구 | 김경우 ; 연준오 ; 양관섭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2012 | 22 | 12 |
| 19 | 천장구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평가 | 김경호 ; 최현중 ; 김양규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 논문집 | 2011 | - | - |
| 20 | 건식 이중바닥 구조의 바닥충격음 저감 방안 분석 | 최현중 ; 김경우 ; 연준오 ; 양관섭 ; 김경호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 논문집 | 2011 | - | - |
| 21 | 실험조건에 따른 임팩트 볼의 바닥충격음 변화 고찰 | 이원학 한찬훈 | 한국음향학회지 | 2011 | 30 | 2 |
| 22 | 벽식구조 바닥판의 중량충격음 특성 분석을 위한 축소모형의 활용 | 유승엽 ; 전진용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2011 | 21 | 9 |
| 23 | 바닥충격음 해석시 실 내부 공기층의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연중 ; 박성수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2011 | 27 | 11 |
| 24 | 튼바닥용 바닥충격음 완충재 잔류변형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김 우 ; 최현중 ; 연준오 ; 양관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2011 | 27 | 4 |
| 25 | 층간소음저감재 장기 내구성 평가를 위한 가열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연준 ; 이찬규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 논문집 | 2011 | - | - |
| 26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에 따른 바닥 충격음 측정 및 평가 연구 | 송국곤 ; 김선우 | 대한건축학회 춘계 우수논문집(제6회) 수상논문 개요집(제6회) | 2010 | 6 | 1 |
| 2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현황 및 개선방향 | 정갑철 | 건축환경설비 | 2010 | 4 | 1 |
| 28 | SBR 라텍스 혼합 모르타르를 활용한 콘크리트 슬라브의 바닥충격음 개선효과 | 이원학 ; 한찬훈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2010 | 26 | 4 |
| 29 | 충격원별 중량바닥충격음 레벨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축소시편을 중심으로) | 신 훈 ; 송민정 ; 백건종 ; 백은선 ; 국찬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 논문집 | 2010 | - | - |
| 30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구현을 위한 건식온돌 이중바닥 시스템 개발 | 오진균 ; 손장열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 논문집 | 2010 | - | - |
| 31 | 다양한 층간소음 저감재료의 동특성 평가 | 김재호 ; 유승엽 ; 박준홍 ; 전진용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 논문집 | 2010 | - | - |
| 32 | 다구치 법을 활용한 바닥충격음 저감구조 평가 | 유승엽 ; 김재호 ; 전진용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 논문집 | 201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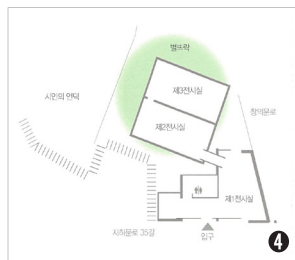
| | 제 목 | 저 자 | 수 록 지 | 발행년 | 권 | 호 |
|----|--|------------------------------|----------------------|------|----|-----|
| 33 | 통합배수시스템의 배수성능 및 배수소음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 김용경 ; 박주양 ; 이정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2010 | 26 | 4 |
| 34 | 연속인하하중에 의한 층간소음저감재 물성변화에 관한 연구 | 박연준 ; 이찬규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0 | - | - |
| 35 | 중량 바닥충격음의 옥타브밴드 스펙트럼이 어노이언스에 미치는 영향 | 류종관 ; 히로시 사토 ; 쿠라카타 겐지 ; 전진용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0 | - | - |
| 36 | 현장실험을 통한 바닥충격음 표준충격원과 실제충격원의 주관반응 | 박현구 ; 김경모 ; 김 율 ; 김선우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0 | - | - |
| 37 | 하중을 받는 층간소음 저감재의 열가속시험 결과 | 김현실 ; 김봉기 ; 이성현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0 | - | - |
| 38 | 수음실 음장변화가 바닥충격음 레벨에 미치는 영향 | 정정호 ; 김정욱 ; 정재균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0 | - | - |
| 39 | 바닥충격음 표준충격원 및 실제충격원의 물리적 특성 분석 | 김 율 ; 강종구 ; 박현구 ; 이태강 ; 김선우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0 | - | - |
| 40 | 완충재의 동특성에 따른 중량충격음 증폭에 관한 해석적 연구 | 황재승 ; 문대호 ; 박홍근 ; 홍성걸 ; 홍건호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2010 | 20 | 7 |
| 41 | 바닥충격음을 고려한 건축음향 이중벽 시스템 개발 | 오진균 ; 조창근 ; 손장열 | 한국생활환경학회지 | 2010 | 17 | 6 |
| 42 | 환경분쟁조정사례 - 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 도기영 | 환경정보 | 2010 | 32 | 389 |
| 43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경우 ; 최현중 ; 김영수 ; 양관섭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2010 | 20 | 2 |
| 44 | 바닥충격음 인장구조의 중량충격음과 동탄성계수와와의 상관성 분석 및 임피던스 예측법에 관한 연구 | 오진균 ; 손장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2010 | 26 | 6 |
| 45 | 점탄성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바닥충격음 저감에 관한 연구 | 황재승 ; 김재형 ; 문대호 ; 박홍근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0 | - | - |
| 46 | 혼합기포 배합비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 윤창연 ; 황동규 ; 조성준 ; 김명준 ; 문성환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10 | - | - |
| 47 | 바닥충격음 표준충격원과 실제충격원의 비교 | 김 율 ; 송국곤 ; 박현구 ; 송민정 ; 김선우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09 | - | - |
| 48 |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라텍스폴리머 콘크리트의 배합비율산정에 관한 사전연구 | 이원학 ; 이반라즐 ; 한찬훈 ; 한상훈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09 | - | - |
| 49 | 슬래브 상부 몰탈층에 사용된 작은시편의 유효성 검토(중량충격음을 중심으로) | 정진연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2009 | 19 | 2 |

| | 제 목 | 저 자 | 수 록 지 | 발행년 | 권 | 호 |
|----|--|-----------------------------|----------------------|------|----|---|
| 50 | 현행 중량바닥충격을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주관평가실험 | 신 훈 ; 김선우 ; 장길수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2009 | 19 | 3 |
| 51 | 하중 스펙트럼의 변화가 바닥충격음에 미치는 영향 | 문대호 ; 황재승 ; 박홍근 ; 홍건호 ; 임주혁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09 | - | - |
| 52 | 선실 바닥충격음 성능 평가 | 김보연 ; 김극수 ; 김노성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2009 | - | - |
| 53 |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방법 비교 및 분석 | 박현구 ; 김선우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2009 | 25 | 8 |
| 54 | Access Floor 바닥충격음 차음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 송국곤 ; 김계중 ; 이태강 ; 김선우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2009 | - | - |
| 55 |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의 바닥충격음 저감대책 | 박철용 ; 홍구표 ; 이종원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2009 | - | - |
| 56 | 포스트텐션 적용 무량판 공동주택의 바닥진동 및 바닥충격음 특성 | 이규동 ; 김일호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2009 | - | - |
| 57 | 완충재 동탄성계수와 경량바닥충격음 저감량의 상관성 | 김경우 ; 정갑철 ; 손장열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2008 | 18 | 8 |
| 58 | 완충재 구성방법에 따른 동탄성계수 및 중량바닥충격음 저감특성 평가 | 김경우 ; 정갑철 ; 손장열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 2008 | 18 | 2 |
| 59 | 중량 바닥충격음 측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측정방법 검토 | 주문기 ; 박종영 ; 양관섭 ; 오양기 | 한국음향학회지 | 2008 | 27 | 4 |
| 60 | 평균진동량을 이용한 바닥충격음 평가 | 김정철 ; 조호규 ; 김태희 | 건설안전기술 | 2008 | 47 | |
| 61 | 충간소음을 유발하는 충격원의 진동발생 모델링 및 충격량 측정 | 류지명 ; 박준홍 ; 전진용 ; 이평직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62 | 중량충격음의 변환 및 바닥충격음의 비선형성 고찰 | 이평직 ; 전진용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63 | 임팩트볼(Impact Ball)을 활용한 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 | 정정호 | 방재기술 | 2008 | 45 | |
| 64 | 발코니 확장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측정에 관한 연구 | 박현구 ; 송국곤 ; 박찬용 ; 김선우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65 | 현행 중량바닥충격음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주관평가실험 | 신 훈 ; 백건중 ; 송민정 ; 장길수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66 | 주택성능등급제도에 바닥충격음 개선방안 연구 | 고종철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 제 목 | 저 자 | 수 록 지 | 발행년 | 권 | 호 |
|----|--|-----------------------------|------------------------|------|----|----|
| 67 | 바닥충격음 완충재의 동적특성에 관한 연구 | 김홍식; 김도형; 방민 | 한국생활환경학회지 | 2008 | 15 | 1 |
| 68 | 충간소음의 불편비용 추정 | 유승훈; 이주석 | 국토연구 | 2008 | 58 | |
| 69 | 완충층 조합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변화 사례연구 -T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신 훈; 백건중; 송민정; 장길수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70 | T사 바닥충격음 실험동 소개 | 백건중; 신 훈; 송민정; 장길수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71 | 측정 불확도에 따른 중량충격음 측정편차에 관한 연구 | 유승엽; 김용희; 심명희; 전진용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72 | 거실평면형태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음특성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 박현구; 박찬웅; 김선우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73 | 표준시험동에서 바닥마감재에 따른 바닥충격음 특성평가 | 김학천; 김용길; 김상철; 이현열 ; 조형호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74 | 현장측정자료를 이용한 중량바닥충격음 산술평균 평가량의 유용성 고찰 | 신 훈; 송민정; 백건중; 장길수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75 | 공동주택 화장실 충간 소음 저감기 개발 | 김영수; 이재국; 김창열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76 | CFT 기둥-RC 무량판 슬래브 외부접합부의 횡방향 성능 | 송호범; 송진규; 오상원; 김병조 | 한국콘크리트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 20 | 2 | 11 |
| 77 | KS F 2862의 단일수치평가량에 의한 건축용 건식 벽체의 차음성능 분류 | 장길수; 이태강; 송민정; 김선우 |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 2008 | 2 | 1 |
| 78 | 현대산업개발, 화장실 충간소음 개선 시스템 개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설비건설 | 2008 | 11 | |
| 79 | 다목적 공간의 소음 및 실내음향 제어 | 정정호; 김정중; 조창근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80 | 완충재 종류에 따른 경량바닥충격음 저감특성 평가 | 김경우; 양관섭; 정진연; 임정빈 ; 정갑철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 81 | 온돌층의 구조안정성을 고려한 바닥충격음 완충재의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임정빈; 이병권; 고종철; 황규섭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2008 | - | - |

APU Story #3

윤동주 문학관 설계_이소진(아뜰리에 리옹 서울)



- ① 윤동주 문학관 전경 / 사진 이경신
- ② 열린 우물(제2전시실) / 사진 이경신
- ③ 닫힌 우물(제3전시실) / 사진 이연화
- ④ 윤동주 문학관 배치평면 / 출처 브로셔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윤동주문학관은 2009년에 문을 닫아 인왕산 자락에 버려져 있던 청운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세월의 흔적이 살아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곳이다. 방치된 폐시설을 최소비용을 들여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되살렸다는 점에서 도심재생의 우수사례로 꼽히며, 건축적으로 시인의 시 세계와 느낌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동주문학관의 전체적인 테마는 우물이다. 윤동주에게 우물은 '성찰'을 뜻하며, 우물을 모티브로 그의 대표작 '자화상'이 탄생했다. 문학관 옆 계단을 따라 올라가 시인의 언덕에 오르면 우물의 형태를 지닌 윤동주문학관을 내려다볼 수 있다.

'시인재'로 불리는 제1전시장은 시인의 순결한 시심이 상징

하는 순백의 공간으로 '인간 윤동주'를 느낄 수 있다. 9개의 전시대에는 시인의 일생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사진 자료들과 함께 친필원고 영인본이 전시되어 있다.

'열린 우물'로 불리는 제2전시장은 윤동주의 시 '자화상'에 등장하는 우물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용도 폐기된 물탱크의 윗부분을 개방하여 중정을 만들었다. 물탱크에 저장되었던 물의 흔적이 벽체에 그대로 남아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퇴적을 느끼도록 해준다.

'닫힌 우물'의 제3전시장은 또 하나의 용도 폐기된 물탱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만들었으며, 일본 유학중 후쿠오카 감옥에서 희생당한 윤동주 시인을 기리며 침묵하고 사색하는 공간으로 시인의 일생과 시 세계를 담은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다. / 글·편집 이경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은

우수한 녹색건축물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건축문화 행사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직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녹색건축 정책을 선도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녹색건축물 사례를 공모합니다.

공모대상

준공건축물(리모델링 포함) : 공고일 현재(2013.8.5) 사용승인된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물 :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건축물 패시브디자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주거·업무·상업용 등 모든 건축물)

공모자격

출품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1인
◎ 단, 설계자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대장의 설계자와 실제 설계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있는 설계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응모 가능

공모일정

참가신청 8월 05일(월)~9월 04일(수) 이메일, 우편접수
작품접수 9월 05일(목)~9월 06일(금) 방문, 우편접수 (참가신청자에 한함)
심사발표 9월 30일(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자세한 사항은 녹색건축대전 홈페이지 참고

시상내역

대 상 1점 (500만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최우수상 3점 (각 3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 수 상 7점 (각 100만원) 주관 및 후원 기관장상 (부처 장관상 제외)

접수·문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이 메 일 green2013@auri.re.kr
주 소 431-8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B-710
전 화 031-478-9828, 9835 팩 스 031-478-9609
홈페이지 www.green2013.or.kr

주 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 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후 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대한건축사협회



위층 킹콩 아래층 팬더



전체 국민의 65%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00만 가구 시대! 층간소음 문제가 우리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놀이는 밖에서!
뛰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세요



늦은밤 러닝머신, 골프 등
소리 나는 운동은 피해요



TV, 음향기기, 악기의
볼륨을 낮춰요



빨래, 청소, 설거지 등
가사소음을 줄여요



가구 끌기, 망치질은
자제해주세요



애완동물이 짖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요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Acrotower Office,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